

한중일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원의 언어관리*

박 양 순**

yangsun2@hanmail.net

〈 目 次 〉

- | | |
|----------|------------------|
| 1. 들어가기 | 4. 언어행동 표지의 출현빈도 |
| 2. 선행연구 | 5. 마무리 |
| 3. 분석 방법 | |

Key Words : 언어관리(language management), 표지(marker),
모어상황(native situations), 접촉상황(contact situations)

1. 들어가기

대화 참가자는 해당 장면에서 상대방의 언어행동에 대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정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언급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리 하에서 대화를 수행한다. 상대의 발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가, 정중한 태도로 응대하는가, 목적하는 바가 충실히 전달하고 있는가, 불쾌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충분한 배려가 수반되고 있는가 등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여 언어행동을 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1-A00114).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언어관리¹⁾를 다루고자 한다. 개인의 언어관리는 모어인가 아닌가, 즉 <자기의 언어>인가 <상대방의 언어>인가에 따라 언어관리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언어관리는 개인의 [행동+사고+언설(言說)]에 의해서 발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행동과 사고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나 일치하더라도 언설(言說)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수행되는 모어화자 간의 대화(모어상황)와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간의 대화(접촉상황)에서 제각기 개인의 언어관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에서 각각 대학생이 지도교원에게 의뢰를 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모어상황과 접촉상황의 담화를 수집하여 언어행동의 언어관리 양상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개인의 관리하에 전개된 언어행동을 규정지으려는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삼는 배려언어행동 연구와 접촉장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운용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1 배려언어행동

배려언어행동 연구에서 다카야마(高山善行 2009)에서는 종래의 경어 이외에 <문(文) 종류의 선택> <서두표현(前置き表現)> <보카시표현(ほかし表現)> <담화구성>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히다카(日高水穂 2009)에서는 일본어의 배려언어행동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사항을 주장한다. 즉, (1)일본어에서는 상대의 심리상태나 지식상태를 살피는

1) 언어관리란 네우스투프니(ネウストフニー 1995)가 제창한 이론으로, 언어사용(담화)에서 기대 또는 규범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유의가 필요한 경우, 주체(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련의 조작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개인을 주체로 하는 유의와 조작 등의 언어관리를 다룬다.

것이 배려언어행동이 되며, 동시에 상대에게 자신의 심리상태, 지식상태를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살피기(察しあい)>의 배려언어행동은 담화전개와 그 구성요소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2)<살피기>에 근거한 담화는 전개가 미리 예측 가능한 양상으로 이끌어가기 쉬우므로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3)일상 회화를 보다 <살아 있는 대화>가 되도록 노력하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조적인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자세는 배려언어행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한중일의 의뢰담화의 모어상황을 상호비교한 연구로 오키·강석우 외(沖裕子·姜錫佑 2010)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지도학생이 지도교원에게 추천장을 의뢰하는 장면에서 한중일의 문화에 적합하다고 여긴 작문례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어담화에서는 의뢰를 하되 구체적인 의뢰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언어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행동이 피의뢰자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에 비해 중국어담화에서는 사전에 의뢰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뢰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상대를 번거롭게 하는 데에 대한 명분을 추가하는 언어행동이 기대된다. 한국인 지도학생은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失礼します」에 상응하는 정형화된 인사말이 나타나기 힘들며 대개 감사표현으로 나타나는 한편, “월요일에 가지러 오겠느냐”라는 교원의 발언에 “월요일은 제가 학교에 안 오는데, 교수님 화요일에 찾으러 오면 안될까요?”라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언어화하는 담화를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려언어행동을 접촉상황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언어관리로 나타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2.2 접촉장면에서의 언어행동

접촉장면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1)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2)비모어화자가 <상대의 언어>에 적절히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우선, 팬(ファン 2006)은 상대언어접촉장면에 놓인 참가자의 관계는 두 사람 간은 언어적 우열이 아니라 언어호스트로서의 관리(host management)가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포리너 토크(foreigner talk)와 같은 언어행동이 나타

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팬(Fan 2003)에서는 상대언어접촉장면 등에서 호칭 문제를 통해 사회언어적 규범 의식에 관해 조금 다루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대상자가, [평가의 기준을 엄하다], [모어의 규범을 적용한다], [새로운 일본어의 규범을 만든다] 등의 언어규범의식을 가지고 일본어 사용을 관리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무라카미(村上かおり 1997)에서는 접촉장면경험이 모어화자의 <이해체크(comprehension competence)>를 발달시키는 결과를 빚으며, 마스이(増井展子 2005)에서는 접촉경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담화를 수복하고자 하며 <환언(言い換え)> 등 다양한 방법, 표현이 사용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접촉장면에서의 비모어화자의 언어행동은 일본어교육적 측면에서 비모어화자의 언어행동을 평가하는 측면(小池2003, 小林2004, 富田2004, 原田2001, 渡部2003 등)과, 대조언어학·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비모어화자의 언어행동의 모어화자의 언어행동의 상이를 다루는 연구(荻野他1990, 生越1995, 熊谷1995, 中道·土井1995)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다. 언어행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측면에서 볼 때, 다카사키(高崎みどり 1997)에서는 여성의 언어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발화된 언어표현을 <丁寧·ぞんざい·形式的·親近的> 등으로 나누어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3. 분석 방법

3.1 데이터 내용

본고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롤플레이 형식으로 이루어진 인터뷰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²⁾를 사용하였다.

인터뷰 조사내용 및 조사상황은 지도학생(대학생)이 지도교원을 찾아가(도입부), 미국탐방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의뢰하는데(의뢰부1), 교수는 그 적극성을 칭찬하며(칭찬부)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학생은 서류항

2) 조사데이터는 조사대상자 1명당 대략 10분전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언어행동의 수행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시간의 장단은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목을 질문하고 작성한 다음(질문부), 추천서를 다음날까지 작성해 줄 것을 재차 의뢰하게(의뢰부2) 되나, 교원은 기간이 촉박하게 의뢰한 데 불만을 표명하고 학생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한 뒤(해명부), 지도교원측이 유학생환영회의 준비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나 이를 거절하고(거절부) 퇴실하는(종결부) 면접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서류의 성격은 보증인을 수락하는 내용으로 이름, 주소, 나이, 결혼여부, 연수입, 주거형태, 박사학위 취득여부를 기입하는 개인 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중일 조사에서는 동일한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여, 서울·베이징·도쿄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지도교원은 한중일의 실제 대학교원 각1명이 담당하였으며, 지도교원의 언어관리는 학생의 대응을 지켜보며 필요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통일하였다.

조사시기는 2009년 4월~10월에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³⁾. 괄호 안은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를 약자로 표기한 것이며 그래프에서는 약자로 표기한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합계
한국조사(서울 J대학)	10명(KK)	11명(KC)	10명(KJ)	31명
중국조사(베이징 B대학)	10명(CK)	11명(CC)	10명(CJ)	31명
일본조사(도쿄 T대학)	10명(JK)	11명(JC)	10명(JJ)	31명
합계	30명	33명	30명	93명

이하는 한국인·일본인·중국인 모어상황의 도입부와 의뢰부(1)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다음 절(§3.2)의 표지에 관한 사항도 #로 기호화한 다음 간략히 표시하였다.

3) 실제 조사대상자는 93명 이상이나 데이터로 사용한 인원수이며 중국인이 1명씩 많으나 이는 조사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KK01(女)

JJ05(女)

<p><학생이 문을 두드린다> 교수: 네 학생: 안녕하세요? 교수: 아, 오늘 오기로 한 학생이구나. 학생: 네,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교수: 응, 몇 학년이었더라? 학생: 아, 저 4학년이요. 교수: 아아. 학생: 이제 #(구체적)졸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응> 교수님께 좀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u>교수: 그래그래, 일단은 알아 봐. 도입부</u> 학생: 아, 교수님 #(구체적)메일 받으셨죠? 교수: 응. 학생: 제가 갑자기 너무 그렇게 <응> #(정중)엄치없게 메일을 보내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수: 아니,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몰라서. 학생: 아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보내 드렸어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가 저도 너무 #(정중)두서없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하나면요. <응> 제가 일단 가져 오긴 했는데요. <응>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미국 탐방프로그램이라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방학 때 미국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그렇게 그 탐방을 보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제가 약간 예술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구체적)뉴욕대학교 예술 경영 학과가 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런 게 있길래 좀 #(구체적)가보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수: 그러네. 좋은 경험이 되겠네. 학생: 네, 그런데 이거 하는데 교수님 동의서랑요 추천서는 꼭 안 써 주셔도 되는데 교수: 응 학생: 교수님 동의서는 꼭 필요해서요. 교수: 응 학생: 예, 그래서 교수: 동의서도 있구 추천서도 있는 거구나? 학생: 예, 근데 추천서는 있으면 교수: 응 학생: 아무래도 #(구체적)가산점이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하 생략></p>	<p>(トントン) 교수: はい。 학생: #(매리)失礼します。こんにちは。 교수: こんにちは。 학생: えっとですねえ。今回あの#(구체적)アメリカエアラインところがやってる、ちょっとアメリカ大学訪問プログラムっていうものの、えっと推薦状をどうしてもいただきたくて 교수: そうですね。 학생: はい。 교수: (座るように指示) 학생: あ、#(매리)すみません。 교수: えっと、お名前 학생: あ、はい。突然#(매리)申し訳ありません。えと、〇〇と申します。 교수: はい、えっと何年生でしたっけ。 학생: えっと3年生です。えっとですね。(매리)すみません突然。 <u>교수: いいええ。 도입부</u> 학생: 実はですね、ええと、アメリカ、アメリカンエアラインというところが、えーとちょっとやってるプログラムで、えーと、まあ大学の休み期間中に最大10日間ほど、えーとと希望する、私、えーとと志願者が希望する、えーと他の大学でしたら、どこでも、あの一、いいということで、で、えーと、その一航空券と、滞在費、10日間の滞在費、えーとと全て、出して、くださるという、<ふうん。> そのプログラムなんですけれども、で、えーと、あ一#(구체적)私も留学にとても興味がありまして、でもなかなか、あの一、まあえーと#(구체적)費用もかかりますし、えーととちょっと機会がなくて、で、えーと#(구체적)就職してからでも、まあ私は#(구체적)官僚を目指してるんですが、そういう留学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が、でも、やっぱりえーと、行って見てその#(구체적)雰囲気を経験してみたいってのがすごくありまして、で、えーと、しかも一、あの一、まあ、えーと、滞在費まで全部援助して下さるってそういうプログラムで、えっと、今回すごくこれに、えーとと参加したいなっていう、思ってるんですが、もそこで、どうしても推薦状が必要なんです。 (笑)<이하 생략></p>
---	--

<p>老师：请进 学生：老师你好！ 老师：哦，你好！ 学生：老师就是我有事儿想拜托你一下。就是我们那个…… 老师：你请坐。 学生：嗯，好的，谢谢！就是…… 老师：你叫什么名字啊？ 学生：我叫○○，然后…… 老师：你现在是几年级的学生？ 学生：研一的。我是社会经济方向的学生。 老师：嗯。 <u>도입부</u> 学生：嗯，就是因为那个……我就是在网上找到一个活动吧。<음>就是说美国的一个航空公司，然后可以提供给我们一定的费用。就是在返的机票还有探访期间的一些活动的费用。然后可以给我们在暑假的时候，提供一个时间最长为10天的，到美国去……就是支助我们去访问或者留学的一个机会。然后我想，就是请您给写一个就是同意书，就是教授的同意书，还有一个推荐信。然后我觉得，就是……我是学社会经济的吧<음>然后就是经济方面吧。美国比较先进。然后我想利用这10几天吧，<음>然后访问一下……那个美国。然后在那边学习一下他们的经济还有社会的一些内容。然后，同时还锻炼一下英语水平，了解他们一些文化。<음>然后，从来也没去过，之前。然后就是，不但要了解日本，同时还要了解美国的嘛，因为他们在经济方面比较有优势的，在全世界。所以想请您给写一个担保书，就是这个同意书。<음>这个活动吧，就是因为写这个同意书我需要向您说明的一点就是……<음>可能就是，如果我在美国发生一些什么情况，可能您会承担一定的责任。但是我当然会遵守法律还有那个自身的安全。<음>然后尽量不会出现任何问题。<음>但是作为一个程序来说需要这一步。所以请您给写一个担保书。不知道您……可不可以？ <이하 생략></p>	<p>교수：들어오세요. 학생：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음, 안녕! 학생：교수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 교수：앉아. 학생：네, 네, #(정중)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이름이 어떻게 되지? 학생：저는 ○○입니다, 그리고... 교수：현재 몇 학년 학생이지? 학생：대학원 1학년입니다. 저는 사회경제학과의 학생입니다. 교수：음. <u>도입부</u> 학생：네, 그러니까 어... 저는 #(구체적)인터넷에서 정보를 하나 봤는데, <음> 그러니까 미국의 한 항공회사에서 대학생에게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탐방기간의 여러 활동의 비용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여름방학 때 최장 10일 동안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하거나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동의서 한 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의 동의서 그리고 추천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 저는 #(구체적)사회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음> 경제 방면에서는요 #(구체적)미국이 비교적 선진적이다보니 10일을 이용하여서요. <음> 그 미국을 방문해서요 거기서 그들의 경제나 사회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어서요. 동시에 #(구체적)영어실력도 실천해 볼 겸 그들의 #(구체적)문화를 알아보고 싶어요. <음> 또 저는 여태껏 #(구체적)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구체적)일본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체적)경제면에서 비교적 우세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증서, 그러니까 바로 이 동의서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음> 이번 활동에서는요, 이 동의서는 제가 교수님께 미리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음> 만일 제가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일정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당연히 법을 지킬 것이고 안전 또한 지킬 것입니다. <음> 그리고 #(목적지향)되도록이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절차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수님께서 보증서 한 장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배려)교수님께서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으세요? <이하 생략></p>
---	--

3.2 언어행동 분석의 기준

담화에는 대화참가자의 언어행동을 판가름하는 표지(標識=マーカー)가 존재한다. 이러한 표지의 사용을 통해서 개인언어관리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접촉장면)를 개인언어차원에서 고찰하여 다음의 5가지 언어행동의 표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1)정중하다 (2)구체적이다 (3)논리적이다 (4)상대배려적이다 (5)목적지향적이다

언어행동 표지 규정은 한중일 3국이 각기 언어형식을 달리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준4)에 따랐다.

(1) 정중하다 : 상대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경우

(겸허표현) 염치없게, 염치불구하고, 두서없이, 心苦しいんですが 등

(감사표현)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상대방의 수락 등에) 助かります 등
(기타) 잘 부탁드립니다 등

(2) 구체적이다 : 이유 등을 밝힐 때 고유명사, 용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예) 문화, 영어공부, 유학을 가고 싶은데, 9.11테러, 대학원 야간 수업, 아르바이트, 불법체류 등

(3) 논리적이다 : 상대방의 이유 설명 요구가 있을 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

(예) 보증인이라는 게 떨어져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르바이트(수업)이 있는 데요 등

4)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에는 원어에 준하여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 번역어(지나친 의역은 회피함)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4) 상대배려적이다 :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여 말하는 경우

(결례표현) 실례지만, 打扰您了[폐를 끼칩니다], 무리한 항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탁인데도, 바쁘신 거 알지만 등

(사죄표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등

(유도표현)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어떻게 가능하시면 등

(부담감감표현) 아니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수입을) 대충 대충 알려주세요 등

(조력표현) 다른 사람을 찾아볼까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등

(5) 목적지향적이다 : 자신의 의뢰를 성공시키기 위해 추가설명을 하는 경우

(의지표명표현) 꼭 가고 싶은데요, 놓치기 아까운 기회 등

(피해행동삼가표현) 절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꼭 돌아오겠습니다 등

(부담가중표현) 많이 안 써 주셔도 되고요, 추천서가 있으면 꼭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교수님만 좀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 제가 작성해서 교수님이
사인만 하시는 것은, 私の個人情報を知っていたかかないと, 되도록이면 등

4. 언어행동 표지의 출현빈도

4.1 한중일 3국의 전체 언어행동 표지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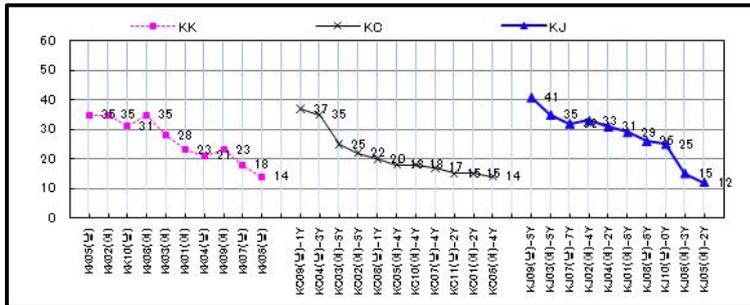
언어행동 표지의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한중일 3국의 언어행동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중일 3국의 각 조사에서 93명의 담화전개에서 5가지 언어행동 표지가 나타난 출현빈도를 집계하여 조사국가별로 그림1~그림3에 제시하였다. 각 그림에서 조사참가자의 배열은 출현빈도가 많은 사람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접촉상황인 경우 개인번호에 덧붙여 (자국에서의 학습기간+외국 체재 기간)을 합산하여 햇수(Y)로 표기하였다. 단 무응답의 경우는 NA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차에 따른 차이는 보이나 한국조사와 일본조사에서는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조사에서는 모어상황과 접촉상황에서 표지에 해당하는 표현의 출현빈도에 차이를 보여 중국어로 수행되는 언어행동에 모어상황과 접촉상황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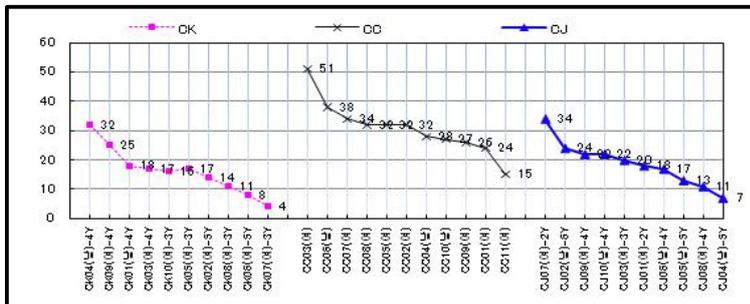
4.2 한중일 3국의 언어행동 표지별 및 화제부별 비교

우선 언어행동 표지인 [정중(하다), [구체적(이다), [논리적(이다), [상대배려적(이다), [목적지향적(이다)]로 나누어 각 1인당 평균 출현빈도를 조사국가별로 그림4~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의 표지를 배열을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표지순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인터뷰내용을 화제부별로 나누어 조사국가별로 그림 7~9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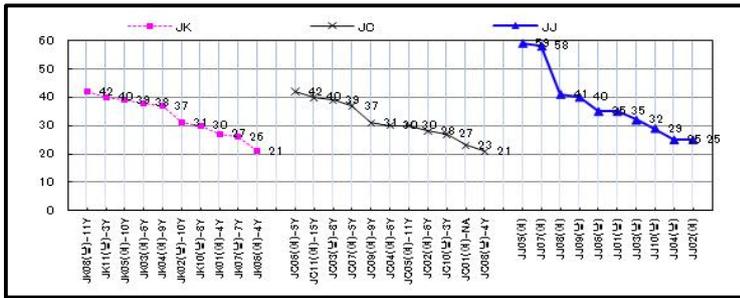
[그림1] 한국조사에서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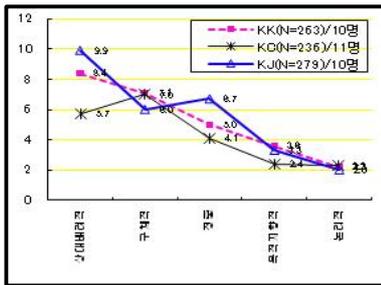
[그림2] 중국조사에서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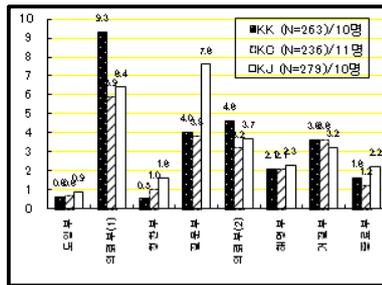
[그림3] 일본조사에서의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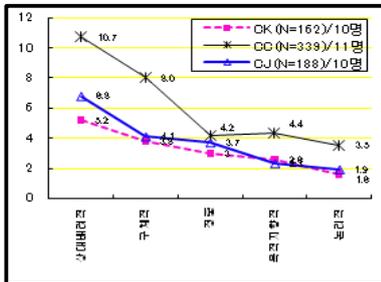
[그림4] 한국조사-표지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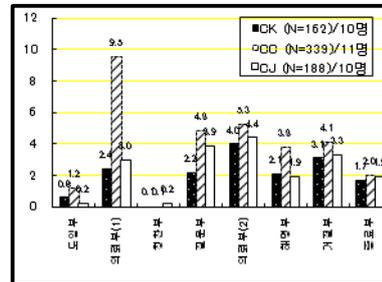
[그림7] 한국조사-화제부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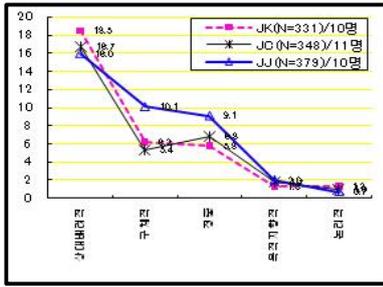
[그림5] 중국조사-표지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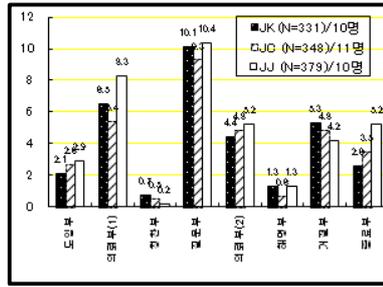
[그림8] 중국조사-화제부별 빈도



[그림6] 일본조사-표지별 빈도



[그림9] 일본조사-화제부별 빈도



4.2.1 한중일 3국의 언어행동 지표별 특징

우선 그림4-6에서 모어상황의 경우, 중국조사(CC)와 일본조사(JJ)는 접촉 상황과 다소 차이를 보이며, 접촉상황에 있는 한국인(CK)과 일본인(CJ), 한국인(JK)과 중국인(JC)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조사에서는 [정중] 이외의 모든 표지에서 모어상황(CC)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상대배려적], [구체적], [목표지향적], [논리적]의 표지에서는 모어화자의 언어관리와 한국인(CK)·일본인(CJ)의 언어관리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중국어로 수행하는 이뮤니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조사에서는 모어상황(JJ)과 접촉상황(JK·JC) 모두 [상대배려적]은 높게, [목적지향적]과 [논리적]은 낮은 빈도를 보인다. 다만 [구체적]과 [정중]의 표지에서 모어상황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조사에서는 모어상황(KK)인 한국인보다 일본인(KJ)이 [상대배려적]과 [정중]의 표지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데에 비해 중국인(KC)은 한국인에 비해 모든 표지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일본인은 모어를 사용할 때와 일관된 언어관리로 한국어 언어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았을 때 일본조사에서의 [상대배려적] 표지는 모어상황과 접촉 상황 모두에서 1인당 18회 전후의 높은 빈도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일본어로 언어행동을 수행하는 데에 [상대배려적]을 염려에 둔 언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에서 [논리적]의 표지는 유효한 언어관리로 쓰이지 않으나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행하는 언어행동에서는 필요하다. 특히

중국조사의 모어상황에서는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 전략이 유효한 언어관리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이라는 표지는 한중일 모두 모어상황에서 높이 나타나 이는 모어화자에 비해 비모어화자의 언어관리에서 <상대의 언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기 힘들음을 시사한다.

4.2.2 한중일 3국의 화제부별 언어행동의 특징

그림7-9에서 담화 흐름의 화제부별로 볼 때 모어화자의 경우, 한중일 3국 모두 의뢰부(1)에서 5가지 언어행동 표지 모두의 빈도가 비모어화자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조사에서는 모어화자(KK)인 한국인은 의뢰부(1)에서 비모어화자인 중국인(KC)과 일본인(KJ)에 비해 높게 나타난 데에 비해 질문부에서는 일본인의 언어행동 표지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조사에서는 모든 화제부에서 모어화자(CC)의 빈도가 높으며 특히 의뢰부(1)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비모어화자인 한국인(CK)과 일본인(CJ)의 언어관리가 모어화자와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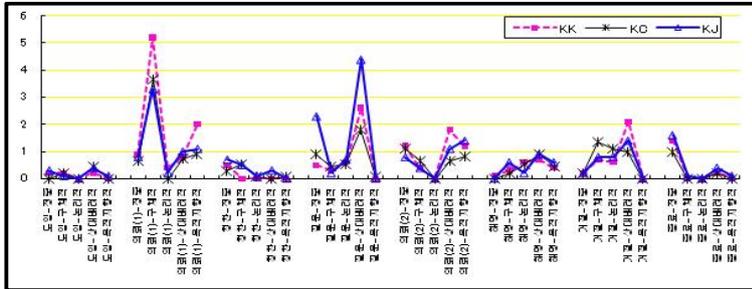
일본조사에서는 모어화자(JJ)와 비모어화자(JK·JC) 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화제부에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는 비슷한 경향의 빈도를 보인다. 다만 의뢰부(1)에서의 차이는 보이거나 질문부에서는 모어화자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모어화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의 조사에서 모어화자의 언어행동과 비모어화자의 언어행동에는 차이가 작은 것은 일본조사였다. 즉 성공적인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일본어로 행하는 언어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어로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조사와 중국조사에서는 모어화자의 언어행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어 한국조사에서는 자국의 언어행동으로 행동하거나 중국조사에서는 언어행동 자체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언어행동의 표지의 출현빈도가 극도로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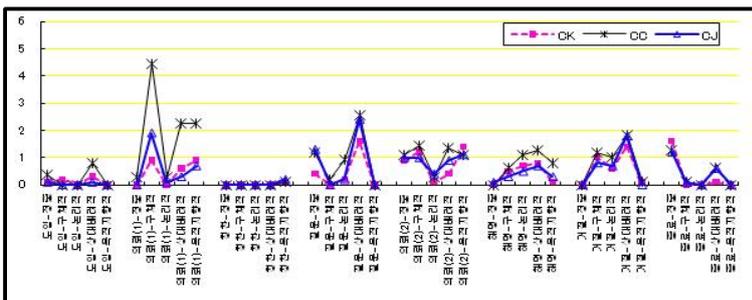
4.3 한중일 3국의 화제부별 언어행동 표지

앞에서 한중일 3국의 조사에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언어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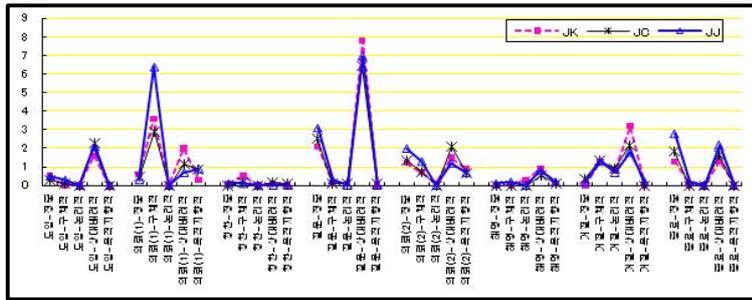
[그림10] 한국조사에서의 화제부별 언어행동 표지 분포



[그림11] 중국조사에서의 화제부별 언어행동 표지 분포



[그림12] 일본조사에서의 화제부별 언어행동 표지 분포



표지별 및 화제부별 빈도를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각 화제부별로 어떤 언어행동 표지가 사용되었는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0-12에는 한중일 조사국가별로 화제부별 언어행동 표지를 기준으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빈도를 표시하였다.

우선 그림10의 한국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뢰부(1)에서 모어화자(KK)와 비모어화자와의 차이는 [구체적], [목적지향적] 표지에서 나타난다. 즉 비모어화자에 비해 모어화자는 구체적으로 목적한 바를 뚜렷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문부에서 일본인(KJ)은 [정중], [상대배려적] 언어표지를 다수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KC)은 거절부에서 [구체적], [논리적]인 언어표지가 가장 많이 보인다.

그림 11의 중국조사의 결과는 모어화자(CC)는 의뢰부(1)에서 [구체적], [상대배려적], [목적지향적] 언어표지의 빈도가 높아, 의뢰를 하면서 구체적이면서 상대배려 하에서 목적을 뚜렷이 밝히는 언어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가 “그럼 좀 일찍 왔어야지”라는 불만 표명에 대한 해명부에서는 [논리적]으로 응대하면서 사죄 등의 [상대배려적]인 언어행동을 함을 알 수 있다. 비모어화자인 한국인과 일본인은 언어표지의 빈도가 낮아 성공적인 이문화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림12의 일본조사의 결과는 모어화자(JJ)는 의뢰부(1)에서 [구체적] 언어행동이 특징적인 데에 비해 질문부에서는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JK, JC) 사이의 언어행동 표지의 출현 경향이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종료부에서 모어화

자의 [정중], [상대배려적]의 빈도가 보다 높고 이는 한국조사와 중국조사에 비해 [상대배려적] 표지의 빈도가 높은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의 조사에서 히다카(日高水穂 2009)의 주장이 반영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의뢰를 위해 방문한 지도학생은,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정형적인 표현의 상대배려적 언급 외에 보다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언급 즉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는 것이 모어화자의 언어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룰이 이문화커뮤니케이션에서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또한 질문부에서는 일본에서는 [상대배려적]인 정형화된 표현이 다수 사용되며 일본인의 경우 한국어 또는 중국어로 언어행동을 할 때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로 언어행동을 하는 데에는 비모어화자로서의 벽이 높으며 이에 대한 중국인의 언어행동에 대한 인식이 널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짐작할 수 있다.

5. 마무리

본고에서는 한중일의 모어상황과 접촉상황의 담화에서 개인의 언어관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중(하다)], [구체적(이다)], [논리적(이다)], [상대배려적(이다)], [목적지향적(이다)]의 5가지 표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1)한중일 3국의 조사에서 모두 모어화자의 언어관리와 비모어화자의 언어관리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조사에서 모어화자에 비해 중국인은 [상대배려적]이 부족하였으며 일본인은 [상대배려적], [정중]에 충실한 언어관리를 보였다. 중국조사에서는 비모어화자인 한국인과 일본인은 모어화자의 언어관리와 동떨어진 현상을 보였으며, 일본조사에서 모어상황과 접촉상황 모두 [상대배려적]의 빈도가 높았으나 모어화자는 [구체적]인 언어행동을 과시화하는

표지를 사용하는 언어관리를 보였다. 이는 일본어의 언어행동이 [상대배려적] 언어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중일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나 한국조사와 중국조사에서는 모어화자의 언어행동에 대한 특징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한중일 중에서 일본어로 수행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대배려적]이 모어화자의 주된 언어관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중국조사에서는 중국인의 언어행동은 [구체적], [논리적], [목표지향적]이라는 표지가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조사의 경우는 [정중]이라는 표지가 주요한 표지 역할을 하나 모어화자의 언어행동 특징을 규정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오키·강석우 외(沖裕子·姜錫佑他 2010)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의 언어행동은 의뢰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언급하는 등 친근함을 보이는 언어행동이 특징적이나 이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다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이는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3)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의 조사에서 히다카(日高水穂 2009)의 주장이 반영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의뢰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정형적인 [상대배려적] 언급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언급이 수반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모어화자의 언어관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러한 모어화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한 인식 또는 훈련이 결여될 경우 접촉상황에서 개개인의 비모어화자가 성공적인 이문화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며 언어관리적 측면에서 일탈에 대한 유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 및 의도를 언어화할 것인지 생략할 것인가를 적절히 조작할 필요가 있다.

<参考文献>

- 石田由美子(2005) 「多言語状況下における個人言語管理—シンガポール、マレーシア、フィリピンの場合—」『言語政策』2号 日本言語政策学会 pp.21-40
荻野綱男他(1990) 「日本語と韓国語の聞き手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朝鮮學

報』136 pp.1-51

- 沖裕子・姜錫佑・趙華敏・西尾純二(2010) 「日韓中の外言談話にみる発想と表現—日本語と日本語教育のための基礎的研究」『人文科学論集.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編』44 信州大学 pp.1-25
- 生越まり子(1995) 「依頼表現の対照研究—朝鮮語の依頼表現」『日本語学』14-10 pp.59-69
- 態谷智子(1995) 「依頼の仕方—國研岡崎調査のデータから」『日本語學』14-10 pp.22-32
- 高崎みどり(1997) 「女性の働き方とことばの多様性」現代日本語研究会(編)『女性のことば・場編』ひつじ書房 pp.213-239
- 高山善行(2009) 「歴史的なアプローチから見た配慮言語行動研究」『社会言語科学会第23回大会予稿集』社会言語科学会 pp.167-170
- 中道眞木男・土井眞美(1995) 「日本語教育における依頼の扱い」『日本語學』14-10
- ネウストブニー, J.V.(1995) 「日本語教育と言語管理」『阪大日本語研究』7 大阪大学文学部日本語学部講座
- 日高水穂(2009) 「談話的なアプローチから見た配慮言語行動研究」『社会言語科学会第23回大会予稿集』社会言語科学会 pp.175-178
- ファン, サウクエン(2006) 接触場面のタイポロジーと接触場面研究の課題」『日本語教育の新たな文脈—学習環境、接触場面、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多様性』国立国語研究所編 アルク pp.120-141
- _____ (2000) オーストラリア香港人移民の言語接触と言語問題の一考察：日本人と英語による初対面会話における話者指示の管理から」『東南アジアにおける人の移動と文化の創造 論集1』宮崎恒二編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pp.121-147
- Fan, Sau Kuen(2003) 「日本語の外来性(foreignness)：第三者言語接触場面における参加者の日本語規範および規範の管理から」『接触場面と日本語教育—ネウストブニーのインパクト』宮崎里司, ヘレン・マリOTT編 明治書院 pp.3-21
- 増井展子(2005) 「接触経験によって日本語母語話者の修復的調整に生じる変化—共生言語学習の視点から」『筑波大学地域研究』25 pp.1-18
- 村上かおり(1997) 「日本語母語話者の「意味交渉」に非母語話者との接触経験が及ぼす影響—母語話者と非母語話者とのインターアクションにおいて—」『世界の日本語教育』第7号 国際交流基金 pp.137-155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8일

게재결정: 7월 31일

<要旨>

日韓中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個人レベルの言語管理

本稿では、日本語・韓国語・中国語による言語行動の際の個人言語管理に注目し、母語場面と接触場面においてそれぞれどのような言語管理が行われるのか明らかにすることを研究目的とする。そのため、大学生が指導教員に依頼および個人情報を聞く場面を想定し、インタビュー調査を行い日韓中の3国で母語話者と非母語話者の93名のデータを収集した。分析では、言語行動を把握するための[丁寧][具体的][論理的][配慮][目的志向]の5つのマーカーに焦点を当ててその出現頻度を比較した。

その結果、日韓中の3国の母語話者の言語管理と非母語話者の言語管理はそれぞれ差が見られた。マーカーの出現頻度では、中国調査での母語話者と非母語話者との差が大きかったが、韓国と日本の調査ではそれほど差は見られなかった。さらに、日韓中の3国の母語話者は、依頼の場面の前後より、依頼を言語化する場面でマーカーが多く見られたが、日本語による言語行動の際は、母語話者と非母語話者ともに教員の年齢、収入などの個人情報を聞く場面でもっともマーカーが多く出現していた。

言語行動のマーカー別にみると、母語話者の場合、[配慮]と[具体的]な発言を重んじる言語管理を見せたが、非母語話者は韓国語による言語行動では[丁寧]を重んじる傾向が、日本語による言語行動では[配慮]を重んじる傾向が見られた。しかし、非母語話者の中国語による言語行動では母語話者の言語管理とも<自分の言語>とも異り、これらのマーカーの出現が乏しいことから、中国語での言語行動に適切な言語管理が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印象が強い。また、韓国語による言語行動では母語話者の言語管理のパターンを明確にするに不十分な結果であったが、これは韓国人の率直に自分の意見を言い、相手に親しさを感じさせる言語管理のパターンを把握するマーカーが含まれていないことが原因だと思われる。これは今後の課題にしたい。